

대행 스님

심상 하나만 잘 쓴다면 세세생생에 공덕을 이룰 것입니다

지난 호에 이어서

이 여섯 번째, 부처님 법설입니다. 스님네들도 알아 둬야 할 일이고 또 스님네들을 따라가는 분들도 알아 둬야 될 일입니다.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의 용어를 방편으로 쓰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런 것도 한문으로다가 다 해 놨습니다. 그때 상황에는 그랬으니까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, 스님네들은 반드시 그것을 끌어내려서 잘 뜻으로써, 이 글자 풀이만 해서도 아니 되고 글자 풀이로만 해서 말만 해 줘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. 또 한문으로도 남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감응도 되지 않게끔 그냥 읊고 그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 된다 이겁니다.

단, 있다면 뜻으로 풀어서 요리를 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잘 맛있게 집어먹을 수 있도록 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. 정신계와 물질계 쌍방을 둘로 보지 않는 설법을 그대로 누구나가, 어느 사찰에서나 어느 스님네나 관법을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.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자기로부터지 누구로부텁니까? 그렇기 때문에 자기부터 알아야 하고, 자기 몸뚱이 속의 자생 중생들이 먼저 깨어나야, 즉 말하자면 자기가 전체가 깨어나지게 되는 것입니다.

또 일곱 번째, 각각 기도해 주는 문제입니다. 허허허. 지금 각 사찰에, 그렇지 않은 절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. 정성을 들이러 오면 개개인의 독불공을 들여 줍니다. 독불공을 들여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독불공을 들여 주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, 지금.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, 향, 물 떠 놓고 밥 한 그릇 공양을 올리는데 이 스님네들 사시 마지 때에 공양 한 그릇 올리면 그 밑으로다 그저 늦게 왔든지 일찍 왔든지, 자기의 소원은 자기가 해야 돼요. 누구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.

왜냐하면 스님네들이 대신 밥 먹어 줄 수 없어요. 여러분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른 거지 스님네들이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배가 부릅니까? 모두 이거는 중요한 문제여서 아주 침착하게 생각해 봐야 할 점입니다.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해야죠. 스님네들은 공양을 올려 드리면서 사시 마지 때 통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'이러이러한 사람이 왔습니다' 하고 말입니다.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원대로 그 생각을 주인공에다 맡기면서 모든 걸 관하는 그 마음씨가 돼야 되겠죠?

그러면 바로 우주간 법계의 일체제불에게 모두가 전달이 돼서 한 찰나에 나투어 주신다 이겁니다. 나투어 줘서 그렇게 밝게 살 수 있게끔 되는 과정이죠.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스님네한테 독불공을 해 달라, 뭘 해 달라 하고 조른다면 그건 너무나 뒤떨어진 사람들의 의식이요, 어리석은 사람들의 마음이요, 이거는 지금 세상에 뒤떨어진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.

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아까도 예금통장 얘길 했지만, 여러분이 초나 향이나 또는 쌀이나 돈이나 가지고 올 때 여러분이 그냥 가져와서 그냥 재탕 여러분이 하고 간다면, 한 푼도 에누리가 없어요. 근데 스님네들더러 우정 해 달라고 했다면, 목탁 두들기고 독불공을 해 달라고 한다면 그 염불을 해주는 대가가 가야 되거든요. 대가가 가니깐 자기네한테 공덕이 갈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죠, 자꾸. 그러니까 쌀 한 됫박 가져왔다 하면 반 됫박은 스님네한테로 가야죠. 삯으로 말입니다. 하하하. 그러고 반밖에 안 남습니다.

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깊이깊이 하셔서 스님네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,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마음. 그 믿고 따르는 마음과 또 스님네가 내주는 조건 없는 사랑의 마음과 내 주인공의 모든 게 한마음으로 찰나찰나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니까,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어찌 더러운 물이 새 물로 안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.

업이 본래부터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이 시각의 생각 자체입니다. 그리고 '이사를 가면 날짜를 봐서 가야 되는데….' 하는 생각이 잠재해 있을 뿐입니다. 남이 그렇게 했으니깐 그걸 보고 듣고 말입니다. 그리고 '손이 있는 날 가서 안 된다는데….' 하고 또 '삼재가 들었으면 사람이 아프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애고가 닥친다는데….' 하는 그 관습입니다, 인제 이게. 그게 바로 잠재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죠. 그게 모두 잠재해 있으니깐 이사를 가려도 걱정, 뭐, 삼재가 든다고, 왜 보기는 또 보는지. 허허허.

보고선 그냥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, 그렇게 걱정하는 약한 데에 들어오는 거지, 싸우는 데 약한 사람이 지는 거지 강한 사람이 집니까, 예? 약한 사람에게 칼이 들어오지 강한 사람에게 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약하게 생각하는 반면에, 이 속에 든 의식들도 다 약한 걸로 돼 버린단 말입니다. 그러니깐 그냥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. 그러니깐 딴 데서 세균이 들어와도 되고, 영계성이 들어와도 되고, '이거는 내 판이야.' 하곤 그냥 남의 집을 막 뺏는 거죠, 그냥.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.

지금 일곱째 얘기하다가 그냥 내내 얘기하는 거죠, 지금. 각각 독불공 말입니다. 그러니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약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, 네? 그러니 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밥은 내가 먹어야 배가 부르다. 내가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내 발로 내가 짚고 일어나야 된다. 누구가 '저 사람 불쌍하니깐 대신 먹어 준다.' 이럭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침착하게 생각하셔서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빕니다.

그리고 여덟째는, 부적이나 관상입니다. 이 부적은 예전엔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마을이 있으면 한 십 리 나가면 또 마을이 있고 이럴 때입니다. 이럴 때에 어느 스님이 지나다 보니 저 마을이 필연적으로 사태가 나서 마을이 다 죽게 되는 이런 이치가 보이거든요. 참, 그 산부처님이죠. 그래서 이 스님이 그 사람들이 모르니깐 방편으로 종이에다가 써 가지고선 "이거를 붙이고 어느 날 어느 시에 피신을 해라." 이렇게 일러 줬단 말입니다.

그러니깐 부적을 믿게 됐죠, 이제. 스님을 믿고 따르게끔 만들기 위해서 방편을 쓴 거죠. 스님의 말을 안 들으면, 즉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쳐지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오니까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, 마음과 마음을 한데 붙이기 위한 방편이죠.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방편을 쓴 것인데, 이제는 장사가 돼 버렸죠. 얼마짜리 얼마짜리 하고 말입니다. 이렇게 해서야 이게 무슨 효득이 있겠습니까? 그냥 도깨비장난이요, 귀신 짓이요, 모두가 독불공 들여 달라고 해서 들여 주는 사람도 도깨비장난입니다, 그게 다, 모두가. 인간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그 뜻과 가르침을 진정코 제대로 받아서 행하지 못하는 소행입

☞ A30면으로 계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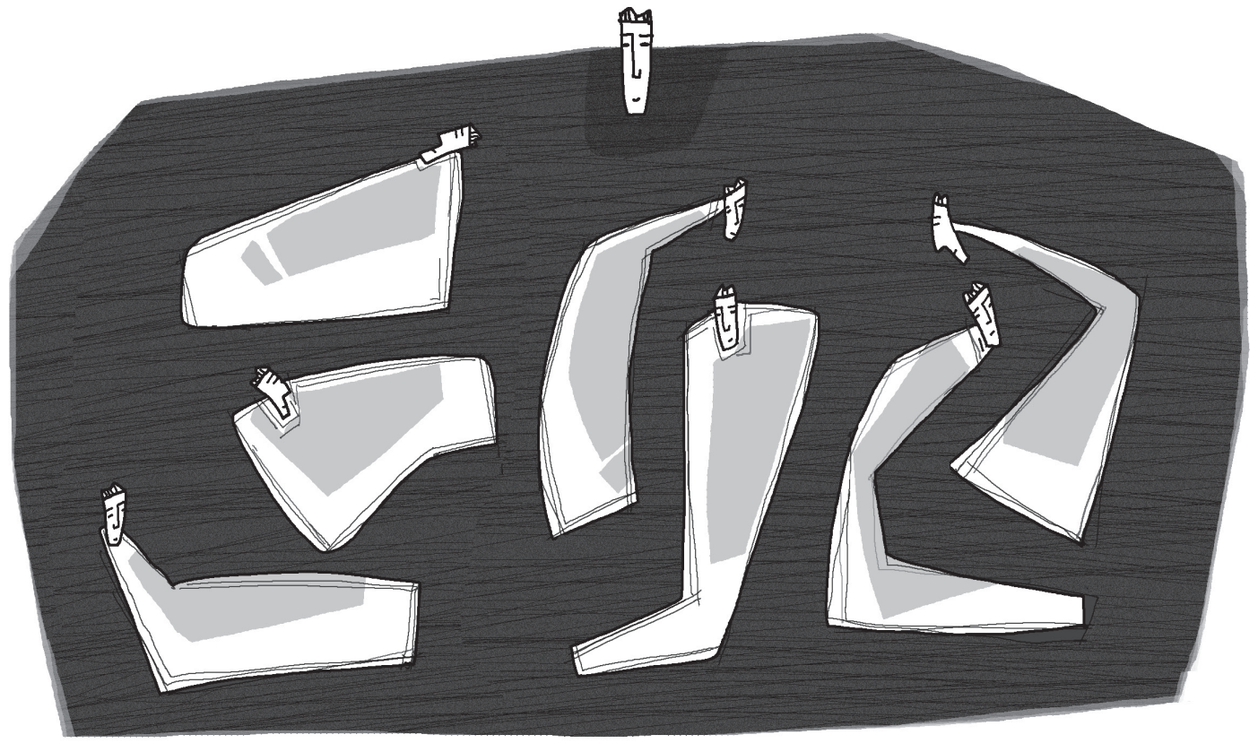


그림 · 최주현

대한불교조계종
한마음선원 대구지원

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
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.
- 대행 선사 법어 -

사부대중 일동

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(중동)
전화 053)767-3100 | 팩스 053)765-1600

불기2569(2025년) 부처님오신날
세상에 평안을 마음에 자비를

